**제후의 선택**

김태호 글 | 노인경 그림

문학동네 | 초등 5학년 이상

제17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 활동1 내가 둘이 된다면 -「제후의 선택」

제후는 잘라 낸 손톱을 먹여 흰쥐를 키웠어요.

제후로 둔갑한 흰쥐는 제후 대신 학원을 다녀요.

손톱 먹은 흰쥐가 '나'로 변신한다면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진짜 나'는 무얼 하고 싶은가요?

'진짜 나'와 '또 다른 나'의 하루를 상상해 그림일기를 완성해 보세요.

| 제목 : 진짜 나의 그림일기 | 제목 : 또 다른 나(손톱 먹은 흰쥐)의 그림일기 |
| --- | --- |
| 요일 : | 요일 : |

# 활동2 나는 위대한 이야기꾼

## -「우리 사랑하게 해 주세요」

강아지 '우리'는 땅에 코를 박고 꼼꼼히 냄새를 맡아

거리에 흩어져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요.

"왈왈왈!"

이번에는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대요.

아래에 '우리'가 찾은 흔적(단어)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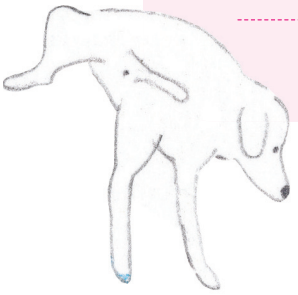
이사 깜이 까만 털 동그랑땡 거울 껌

나는 얼마 전에 이사를 온 깜이라고 해.

까만 털을 가졌고 동그랑땡만큼 커다란 눈에,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건강한 코를 가졌지.

껌처럼 딱 붙어 있을 여자친구가 필요해.

엘리베이터 지하 어둠 휴대전화 구두 꼬리



# 활동3 사과하는 말

## -「나리꽃은 지지 않는다」

전쟁 중 쓰러져 간 나무와 꽃들. 그러나 누구 하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흰 나리꽃들이 다시 피어나 사람들에게 말하죠.

"꽃들에게 사과하세요."

시간은 지났어도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사과받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